

# 한국·호주·뉴질랜드 IT분야 정부·기업 대표 DMB 등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

한국·호주·뉴질랜드 3국의 IT분야 정부 및 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9~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호주·뉴질랜드 브로드밴드 서밋 2005' 행사를 개최했다. 총 5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3국 정부 대표가 자국의 주요 IT정책을 발표하고 DMB·홈네트워크·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글 신승철 기자

**정** 보통신부는 지난달 9~10일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호주·뉴질랜드 브로드밴드 서밋(Broadband Summit) 2005' 행사를 갖고, 3국의 주요 IT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DMB, 홈네트워크, 브로드밴드, e헬스 등 응용 서비스와 온라인·모바일 관련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첫날 행사에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헬렌 쿠난 호주 통신정보문화부 장관, 데이빗 스몰 뉴질랜드 경제개발부 차관보 등 3국의 IT 관련 정부 대표가 참석했다. 또 KT, SK 텔레콤 등 우리나라의 주요 IT기업 대표와 텔스트라, 엠넷 등 호주, 뉴질랜드의 IT기업 대표, 국내외 학계인사 등 120여명이 참가했다.

### 3국 장관 브로드밴드 성공사례 자랑

이번 행사는 2003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1차 한국·호주 브로드밴드 서밋을 확대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1차 행사의 결과로 현재 한국의 ETRI와 호주의 CSIRO간에는 국제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CSIRO는 호주의 대표적인 국책연구소로 농업, 에너지, IT, 제조업 분야 원천기술 연구를 수행한다.

진 장관은 개막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브로드밴드 구축 경험 및 IT 839 정책을 소개하고 "세계적 브로드밴드 경쟁력을 가진 한국과 매트릭스, 반지의 제왕 등 세계적 수준의 영상처리 기술로 유명한 호주 및 뉴질랜드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력모델을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진 장관은 "한국 초고속인터넷이 낳은 새로운 문화 현상이 바로 미니홈피"라면서 "실제 세계와 유사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집을 꾸미고 친척집도 방문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소개했다. 진 장관은 또 "우리 가족도 미니홈피를 통해 서로 왕래한다"고 말했다.

이에 헬렌 쿠난 호주 통신정보문화부 장관은 "일촌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서로 관계를 정하는 것 아니냐"면서 "한 번 해보고 싶다"고 받아쳤다. 쿠난 장관은 이어 "호주에



'한국·호주·뉴질랜드 브로드밴드 서밋 2005'가 데이비드 스몰 뉴질랜드 경제개발부 차관보, 진대제 정통부 장관, 헬렌 쿠난 호주 통신정보문화부 장관(왼쪽부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는 브로드밴드가 보급되면서 '매트릭스' 같은 디지털콘텐츠 작품이 가능했다"면서 "양국간 협력은 재미있는 문화현상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쿠난 장관은 디지털TV 서비스 개시와 관련한 한국의 정책 및 경험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호주는 디지털콘텐츠와 e헬스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문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헬렌 장관이 양국 간 협조를 강조하자 데이비드 스몰 뉴질랜드 경제개발부 차관보는 "반지의 제왕'은 뉴질랜드 브로드밴드 기술의 결정체"라면서 "피터 잭슨 감독이 실시한 동영상을 링크해 특수효과를 성공리에 개발한 것은 바로 광대역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음 번 3국간 브로드밴드 서밋 행사를 뉴질랜드에서 개최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우리측에 IT 분야에서의 인적교류 확대를 요청했다.

정통부는 이번 3국간 브로드밴드 서밋 행사는 3국 정부간 IT분야 협력 확대의 의미뿐 아니라 대양주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IT기업에게 폭넓은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호주·뉴질랜드와 한국의 초고속망 구축 및 디지털TV 방송 전환 경험 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